

# 제천시 용두산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수요 및 의식조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Demand and Consciousness Investigation to th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of YongDuSan Area in Jecheon City

김 승 근\*

Kim, Seung-Keun

### Abstract

This study is the YongDuSan area which finished a basic plan of a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in 2006 February.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of YongDuSan area in Jecheon city progressed as follows. It is played by consciousness investigation to the objects with 143 adult man and woman in a region until November 4th from October 28th(for eight days) in 2005.

The results of study as follows:

First, YongDuSan area and income were mostly contenting themselves in life. This is as there is income through HwangGi, and be as there is a little inconvenience of a life as is located in the city neighboring. Also, prepare the infrastructure which can process a twice and three times through HwangGi businesses, were as an income business they are continuous, and to be stable was possible, and were investigated if done so. The second, local residents were recognizing so that a rural related projects enforcing in the most governments can't affect greatly a life improvement and activation. Therefore, let you understand residents so that these projects are performed by residents, and an educational program and aggressive public information to be able to feel participation consciousness are necessary. The third, Must review a plan to strengthen bisexual a talented person leadership education in order to develop a local ability. And Construction of a system to be able to increase efficiency operating a village and The system that can manage systematically that kind of system is necessary.

키워드 : 농촌마을 만들기, 주민참여, 의식조사, 개발수요

Key words : Rural Community Design, resident Participation, Consciousness investigation, Development Demand

## 1. 서 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제사회는 치열한 경쟁체제 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국가의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의 중앙주도, 중앙집권, 도시주도의 낡은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국제경제환경

의 변화와 지식기반시대의 도래로 경제활동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농촌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여 지속적 국가발전이 가능한 새로운 환경의 조성이 요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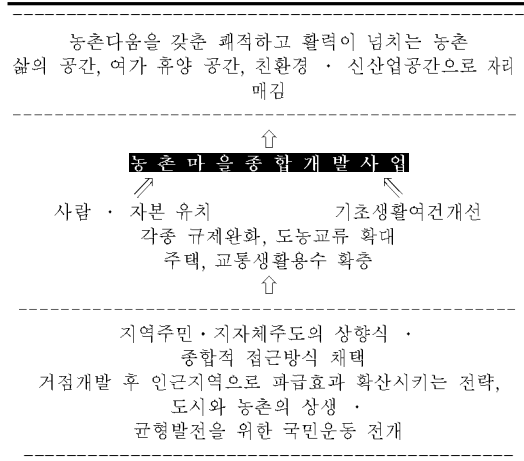
1990년대 후반 들어 지방자치의 실시와 지역 균형발전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간,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눈에 띄게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속도 또한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근본적으로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정희원, 극동정보대학 건축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문제로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어 왔고, 국토의 효율성 저하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를 경험해야만 했다. 이제는 농촌개발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생존을 위한 절박한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이러한 절박한 시점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기초생활시설, 소득확충 및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소권역별로 특성화하고, 소권역별 잠재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향후 소득증대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유형의 농촌 공간 정비를 추진하는 등 다양하고 새로운 지역특성화를 꾀하는 목적<sup>1)</sup>으로 시작되었다.

표 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의미



자료 : 제천시 용두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2006. 2, 제천시 · 한국농촌공사)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주민들의 참여가 왜 필요하며, 어떻게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가를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주민과 전문가와 국가가 함께 하는 상향식 개발방식을 지향하고 있기에 이 문제는 반드시 다루

1) 김승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제7권 제3호(통권21호), 2005. 10. pp.20

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주민참여를 보다 실질적으로 연구하여 향후 진행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기여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2006년 2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기본계획수립을 마친 제천시 용두산권역이다. 제천시 용두산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다음과 방법으로 마을의 전체 사업이 추진되었다.

표 2. 용두산권역의 사업추진 접근방식

번호	사업추진 접근방식
1	주민주도형 상향식 접근 (bottom-up-approach)
2	주민주도형 협동적 접근 (do-with-the -people approach)
3	사회적 자본 동원 (mobilization of social capital)
4	지역주민의 권한 (empowerment)
5	사회 학습적 접근 (social learning approach)

## 2. 용두산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2.1 일반현황

제천시는 충청북도 북부지방에 위치하여 북으로는 강원도 원주시와 영월군, 남으로는 경상북도 문경시, 서로는 충주시, 동으로는 단양군과 접하고 있다. 주요 교통축은 중앙고속도로와 5번, 36번, 38번 등 3개 노선의 국도와 5개 노선의 지방도, 그리고 중앙선, 태백선, 충북선 등 3개 노선의 철도망이 교차하면서 산업물동량과 여객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제천시에서 용두산권역은 법정리수 3개, 행정리수 5개, 자연마을수 2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천시 북단의 차령산맥과 소백산맥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북쪽으로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과 경계하며 서쪽으로 제천시 모산동, 남쪽으로 고암동, 동쪽으로 송학면 사곡리와 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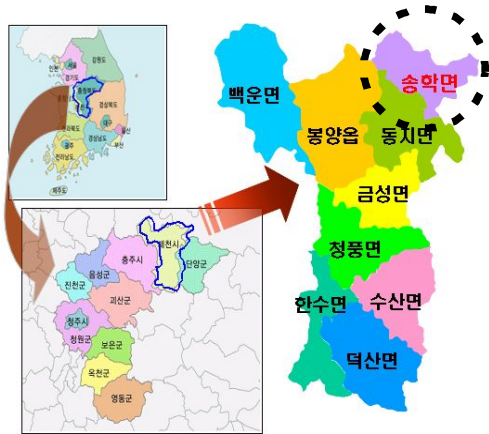


그림 1. 용두산권역의 위치

## 2.2 기본 계획 개요

제천시 용두산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궁극적으로 마을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계획의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통해 계획지역의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용두산권역 마을의 정주기능을 배양하고자 하는 의도로 시작되었다.

우선 용두산권역이 갖는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고 쾌적성을 증진하는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발굴하고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용두산권역 농촌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발전략과 실천계획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용두산권역 농촌마을의 정주기반을

확충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표 3. 용두산권역의 기본 계획 개요

사업명	용두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위치	충북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 포전리, 도화리 일원	
권역규모	별정리(3), 행정리(5), 자연마을(20)	
면적	2,974.2ha(농경지 539ha)	
가구인원	638호(농가 351호, 인구 1,700명)	
지역자원	권역내	용두산, 송학산, 정룡산, 노송쉼터, 점말동굴, 송한천, 토화공방, 남골당, 공원묘지, 제2의림지, 뒤실계, 광암고인돌, 박건효자문, 효열문, 오인용효자비, 백자가마터
	권역외	의림지, 솔밭공원, 로템수양원, 웰빙약초, 박달제한우, 박달재, 공어회

제천시 용두산권역은 전국 최대의 황기생산지로 약초웰빙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석기문화를 상징하는 점말동굴과 고인돌 등의 문화유적이 있어 이를 활용한 지역특성화에 매우 유리한 것을 지역의 특성으로 꼽을 수가 있다.

### 테마

- 황기약초와 점말동굴 -

비전:석기시대를 재현하는 황기체험나라

목표	⇒ 웰빙건강마을	역사문화마을
전략	⇒ 한방건강관리실 산림자원과 운동시설 황기약초자원활용 친환경 생태마을 조성	농촌다움 회복운동 점말동굴 및 고인돌 정비 성황당 및 역사자원 정비 마을역사문화 교육 실시

그림 2. 개발비전 및 개발전략

권역내 지역자원은 포전리는 구석기 역사 유적지를 활용하여 역사문화마을로 조성하고, 송한리는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여 도시민의 농사 체험활동과 연계하는 친환경 생태마을로 조성, 도화리는 지역자원인 황기를 활용하여 황기와 한우를 연계하는 황기한우단지과 황기가공단지를 통해 황기자원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였다.

### 2.3 부존자원현황

용두산권역의 자연생태자원을 이용한 관광자원으로는 우선 점말동굴로 해발873m의 용두산에 위치한 유적지로 굴의 입구는 해발 430m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

표 4. 부존자원현황

자원분류		자원 목록
권역내 자원	자연자원	용두산, 송학산, 청룡산, 노송엽터, 까막까시 보호수, 정자목 다수, 점말동굴, 송한천
	생활환경 자원	청소년수련원, 도화공방, 기독교수련원, 남골당 공원묘지, 기도원
	농어업 자원	제2의림지, 뒤실계, 송한소유지, 안말계, 잣나무 숲, 한우, 고추, 오이, 배, 복숭아, 얼음딸기, 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 황귀, 당귀
	관광자원	조장골계곡, 용두산등산로, 뒤실계 낚시터, 관광농원, 황기칼국수
	역사문화 자원	점말동굴, 고인돌, 효자문, 효열문, 효자비, 백자가마터
권역의 자원 (인근 읍면)	자연자원	용두산, 청룡산, 의림지
	생활환경 자원	술밭공원, 로템수양관
	농어업 자원	웰빙약초, 박달제한우
	관광자원	의림지
	역사문화 자원	박달계, 공어회

송학면 포진리 점말마을에 위치한 점말동굴 유적인 우리나라 최초로 조사된 동굴유적으로 국사교과서에 소개되는 구석기 유적지이다. 또한 제2의림지와 뒤실저수지는 현재도 낚시터로 활용되고 있으며, 백자가마터, 점말계곡, 굴암계곡 등의 자연 자원 및 유적지가 분포되어 있다. 제천시의 다양한 향토문화축제<sup>2)</sup>와 송학면 용두산권에서 개최되는 정월대보름 개화마을 성황당 대동제, 경로잔치, 주민화합행사, 한마음축제행사, 농특산물 판촉행사, 마을대동계행사 등을 통해 도농교류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2) 제천시의 향토문화축제는 1월 의림지 겨울 페스티벌, 4월 벚꽃축제, 5월 제천마라톤대회, 5-6월 환경잔치, 9월 금수산국제산악마라톤대회, 10월 제천의병제, 박달가요제 등이 해마다 열려지고 있으며,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 3. 지역특성 및 개발 잠재력 분석

#### 3.1 마을주민의 개발수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을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표 5. 주민의식 설문조사

조사일정	2005년 10월 28일 - 11월 4일(8일간)	
조사대상	권역주민 성인남녀 143명	
실문조사	1	지역생활 만족도
		지역생활 불만족의 이유
	2	지역발전을 위해 우선 추진되어야 할 사업
	3	소득증대사업으로 가장 바람직한 사업
	4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5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6	환경보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
	7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참여의사
	8	소득사업을 위한 편입토지에 대한 생각
	9	주민협조 여부
		주민협조가 안 되는 이유
	10	마을간 협조여부
	11	마을 문제들에 대한 행정기관과의 협조
	12	농촌관광 도입시 성공가능성
	13	생활환경 수준 개선정도
	14	중앙정부 농촌사업에 대한 인지도
15	정부정책의 농촌 생활환경개선에 기여 여부	
16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에서 주민들의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한 생각	

용두산권역은 2005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8일간)까지 권역 내 성인남녀 143명을 대상으로 주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개발의지 및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것을 계기로 마을주민들에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알리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주민의식조사의 결과를 보면, 지역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40.6%가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만족한다’가 35.7%, ‘불만족한다’가 16.8%로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불만족하다는 응답자 중 그 이유에 대한 답변에서 ‘낮은 소득’(45.5%)을 그 첫째 이유로 대답하였고, ‘낮은 지역발전전망’(24.5%), ‘자녀교육’(13.2%) 순으로 나타나 소득기반시설 부족과 농산업을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주역주민의 의식이 표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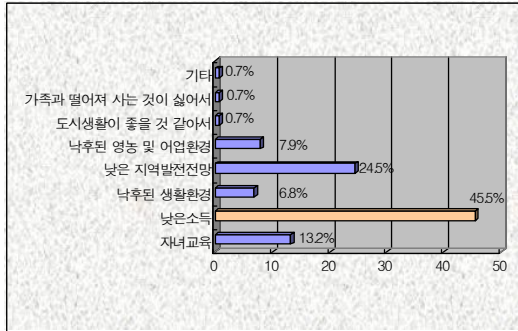


그림 3. 지역생활 불만족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우선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는 '소득증대'(65.0%)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증대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사업을 묻는 질문에는 '생산기반시설 확충'(32.9%), '특산물 판매시설 개발'(19.6%), '소득 작목 개발'(16.7%)의 순으로 나타나 낙후된 농업부문의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을 우선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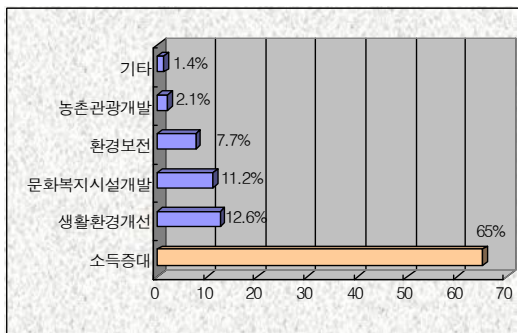


그림 4. 지역발전을 위해 우선 추진되어야 할 사업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는 '마을정화'가 25.4%로 가장 많았고, '도로신설 및 확포장'이 22.4%, '주택신축 및 개량'이 2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 보급'(30.0%)이 다른 문항에 비해 월등이 높았고, '오폐수처리'(18.2%), '생태계 보전'(18.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지역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는 '전통문화의 보전 및 발굴'이 30.7%

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시설'에 29.4%, '운동, 체육시설'에 11.9%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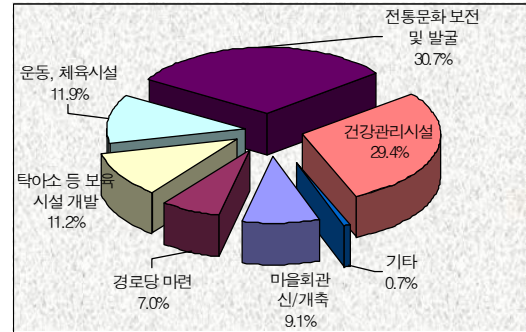


그림 5.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또한 지역에 소득원개발, 생활환경정비, 공원 조성 등을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참여의향을 묻는 질문에 76.9%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응답을 보여 지역개발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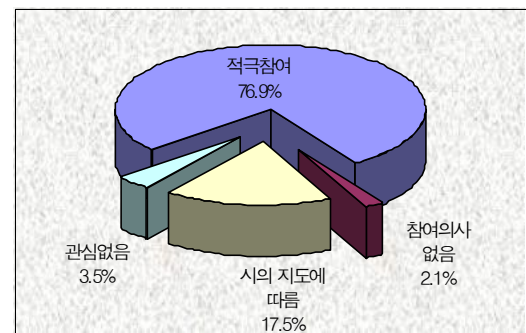


그림 6.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참여의사

그리고 지역에 농산물가공 공장이나 기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생각에 56.6%가 '시가기준으로 매매'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매매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6.3%로 나타났다.

마을의 여러 문제를 의논할 때 주민들의 협조에 대한 질문에 '잘 된다'응답이 43.4%로 높게 나타났으며, '안 된다'는 의견은 10.0% 정도가 응답해 마을문제를 의논할 경우 대체적으로 주민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협조가 안 되는 이유로는 '추진할 인력 부족'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주민간의 신뢰부족'이 25.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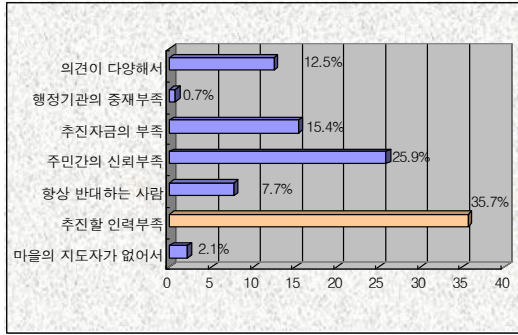


그림 7. 주민협조가 안 되는 이유

이웃마을간의 협조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잘 된다'는 응답이 39.9%로 가장 많았으며, 마을 문제들에 대한 행정기관과의 협조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다', '잘 된다'가 47.5%, 42.0%로 각각 응답하였다.

농촌관광을 도입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36.6%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높다'는 의견은 14.7%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생활환경 수준의 개선정도는 '조금 개선되었다'가 48.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개선이 안 되었다'라는 응답은 6.3%에 불과해 대체적으로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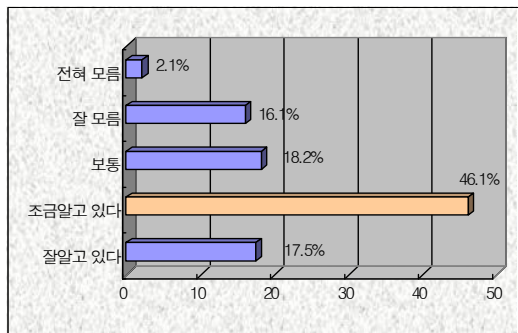


그림 8. 중앙정부 농촌사업에 대한 인지도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정주권개발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46.1%가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8.2%가 '보통', 17.5%가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해 알고는 있으나 대체로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사업목적 및 방향 정도만 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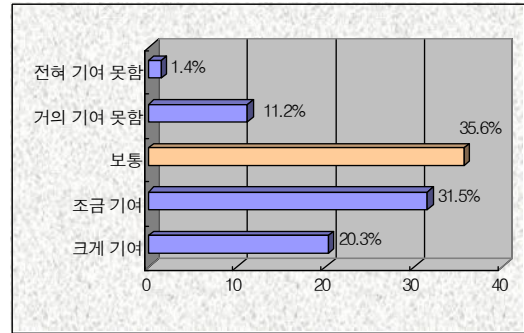


그림 9. 정부정책의 농촌생활환경에 기여 여부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농촌의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였느냐는 질문에 '보통'이라는 응답이 35.6%로 가장 많았으며, '조금 기여'에 31.5%, '크게 기여'에 20.3%로 대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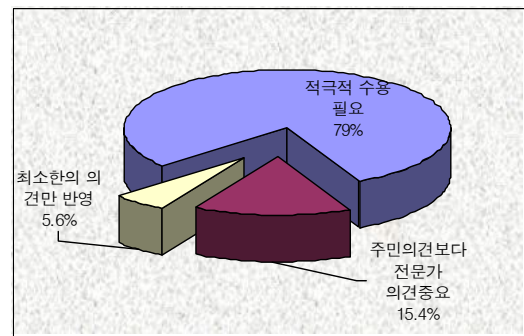


그림 10.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서 주민들의 의견반영여부에 대한 생각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반영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에 79.0%의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주민의견보다 전문가 의견이 중요하다'는 응답에도 15.4%의 응답을 보였고, '최소한의 의견만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5.6%로 나타났다.

### 3.2 개발 잠재력 분석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용두산 권역은 제천시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으로 강원도와 접경하고 있으며, 농산촌 형태의 관광체험권역으로 육성이 가능한 지역이다. 또한 권역의 청정한 자연환경,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 1사1촌 자매결연을 통한 도농교류활성화, 지자체의 상위계획인 약초웰빙특구사업과 연계한 약초특화작목개발, 풍부한 인적자원 등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개발방향으로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권역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마을의 발전을 주도하는 자원으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국내 대표적인 황기산지이자 석기시대 상징자원 점말동굴이 용두산권역의 대표적인 자원으로써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환경농업 인증실적이 아직은 미흡하고 생활환경이 낙후된 마을이 분포되어 있으며, 어느 농촌마을과 같이 농업경쟁력의 문제, 인구 고령화의 문제를 지니고 있어 이를 고려한 계획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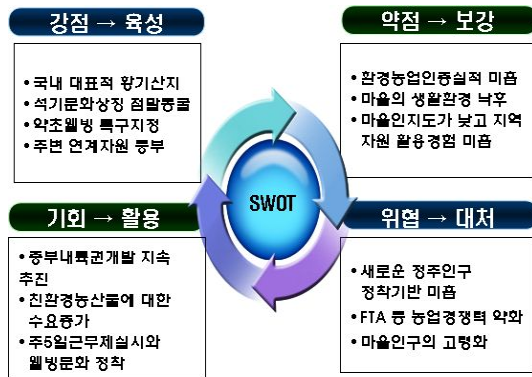


그림 11. 용두산권역의 SWOT분석

### 3.3 권역의 공간별 개발구상

마을이 특성과 잠재력이 있는 부존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테마화하여 상호 유기적 연계성을 갖도록 기능을 배치함으로써 개발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고, 용두산권역의 마을로 하여금 농촌마

을로서의 전원적 분위기, 친환경적 특성, 전통문화 등을 보전하고 고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권역의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표 6. 마을별 개발방향 예측

마을	개발 방향
포전리	구석기 역사 유적지 관광 명소화 사업
송한1리	소득연계친환경 농산물 육성 도시민의 농사체험활동 연계
송한2리	자연생태보존형 마을로 육성
도화1리	마을지명 이미지 브랜드화 (도화(桃花) - 복숭아 가로수길)
도화2리	주변관광자원 연계로 농촌소득 증대

자연생태를 최대한 유지하며 인공구조물의 설치 및 인위적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조래하는 개발형태를 지양하고,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자연친화적인 자재를 사용하고 형태의 측면에서도 농촌풍경 및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그림 12. 공간구조와 기능배분

권역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광고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표지와 시설물을 규격화하여 설치함으로써 평창-영월-제천으로 이어지는 권역 통과 수요자들을 유도하도록 하였으며, 용두산권역 내부를 다시 3개의 소권역으로 구분하여 개별적인 소권역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하되 운영과 개발효과의 편의를 위하여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4. 주민역량강화 - 주민참여



지역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재양성 및 리더십 발휘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마을간, 주민간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마을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특색 있고 자생력을 갖춘 새로운 농촌지역 만들기를 위해서는 주민참여 및 교육이 필요하며, 주민공동체의 마을개발계획 참여를 유도해내기 위해서는 경영능력을 갖춘 지역지도자 육성과 주민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주민참여 유도 및 의견수렴, 합의도출을 할 수 있는 주민조직 구성 및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외부 전문가, 여론주도층, 도시소비자 및 각종 단체와 교류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마을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은 마을별 대표농가와 지도자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험과 안목을 갖고 점차 인식을 전환하도록 하며, 주민참여는 초기에는 개별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하되 점차 조직화, 기능화 하여 주민단체나 영농조합을 결성한 후 농촌관광의 기획, 상품화, 마케팅을 주도하도록 한다.

공동체 강화와 지역개발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도자의 역할과 함께 사업별 분담을 통한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주민참여는 수준별, 단계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주민의 능동적인 역량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마을의 가치와 비전을 공감하면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진 주민이 되고, 마을도 기업이라는 경영마인드, 서비스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 5. 맺음말

제천시 용두산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수요 및 의식조사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용두산권역에서의 생활과 소득은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황기를 통한 소득과 도시와 인접한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황기 사업을 통하여 2차·3차 가공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춘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지역주민들 대부분이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관련 사업들이 생활개선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업들이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려면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참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재양성과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마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는 농촌마을 관련사업의 성공여부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김강섭, 손광호, 이상정, 주민 참여에 의한 지역공공시설 계획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제8권 1호, 2006. 2.
2. 김강섭, 이상정,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006. 2.
3. 김승근, 김정진, 주민이 참여하는 농촌마을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제5권 2호, 2003. 6.
4. 김승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제7권 3호, 2005. 10.
5. 최효승, 농촌마을만들기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제7권 1호, 2005. 2.
6. 제천시·한국농촌공사, 제천시 용두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2006. 2.